

# 진주시 ‘여성친화도시’로 변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공중화장실 안심 지킴이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주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진주’라는 슬로건 아래 ▲ 성평등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 영역 전반에 걸쳐 시민과 함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진주시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 분야 육성과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 발전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춘 전문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여성 농업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발굴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성 리더 양성에 힘을 계획이다.

## 안전한 행복도시 1번지 만들기

진주시는 구석구석 꼼꼼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 가구의 일상 안전을 보장하는

‘여성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안심 무인 택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심 홈 방문 서비스를 30가구에 제공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또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를 공공시설 6개소에 설치해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는 곤란한 경험에 대한 생활 속 복지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는 이를 1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에는



안심 무인택배함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비상벨 및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 안심 지킴이단을 수시로 운영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진주 여성친화 토론폰방’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분과 44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역량 강화 워크숍과 분과별 모니터링 활동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생활 속 불편·불안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당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힘든 상황에서 SNS를 이용한 ‘진주 여성친화 토론폰방’ 온라인 토론회를 매월 1회 진행해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WITH 진주! WOMAN UP!’을 홍보 슬로건으로 가수 코요태의 ‘만남’을 개사해 시청 공무원들이 노래하고 진주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울동을 곁들여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더 친근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진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